

생태주의, 아나키즘, 그리고 사회생태주의

안노연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I 서 론

포식자들로부터의 위협을 시작으로 부족 및 국가 간의 분쟁에서 야기하는 각종 전쟁과 질병에 대한 위협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다양한 종류의 위협으로부터 한 번도 해방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인류는 '생태위기'라고 하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미국과학진흥회(AAAS), NASA 등 대부분의 연구기관은 지구온난화 덕분에 금세기동안 4미터이상의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1미터의 해수면 상승만으로도 1억명의 사람들은 난민으로 전락한다. 비단 해수면상승뿐만이 아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그로 인한 방사능누출 등의 문제 온갖 생태문제는 환경문제가 그동안 세계를 구성해온 '민족국가'라는 단위를 초월한 위협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생태문제에 관한 많은 사람들의 입장은 그저 '환경보호' 혹은 '환경보존'이라는 소극적인 형태의 인식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환경문제라고 하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분리수거를 실천하며,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하는 것 정도로 해결할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에 있을 뿐이다. 사람들이 이처럼 뿌듯부르주아적 순진한 공상에 빠진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환경'을 단순히 보호하고 가꾸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 앞에서 더 이상 환경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인간 스스로 초래한 각종 문제 앞에서)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인간안보'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인간사회에 얽힌 수많은 문제처럼 환경문제 역시 단순히 자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경제문제, 즉 자본주의의 폐해와 직결되는 현상이다. 그 이유는 현대사회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온갖 종류의 불평등이 산업중심의 자본주의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저발전국가를 희생양으로 삼아 그들의 자원을 고갈될 때까지 채굴하는 흡혈귀들이다. 선진국이 저개발국가로부터 얻은 부를 통해 기술을 발전할 동안 저발전국가들은 자원을 판매한 부의 분배는커녕 반복되는 가난의 악순환 속에서 기본적인 생계조차 위협받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 같은 불평등은 지구의 생태파괴적인 위기에서 저발전국가들의 위기대응능력을 앗아감과 동시에 저개발국가로 하여금 현상탈피를 위해 그나마 그들이 가진 유일한 천연자원들의 판매에만 의존하게 만들어 생태파괴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생태위기의 심각성은 국제사회의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위한 국제공조 시도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비록 선진국들이 모여서 교토의정서를 체결하고, 리우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원칙으로 채택했다한들 그 어떤 변화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 까닭은 행위자로서의 국가란 필연적으로 문제해결의 답

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이라는 패러다임에 기반한 자본주의(혹은 사회주의라고 할지라도) 하에서 국민국가란 필연적으로 끊임없이 이윤(국익)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힘(Power)을 획득하여 또 다른 이윤을 산출해내는 순환고리에 갇힐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생태파괴 역시 영구적으로 반복된다.

단일권력체로서의 국민국가와 자본의 공고한 동맹을 분쇄하지 못한다면 생태파괴를 저지할 수 없기에 더 이상 국민국가에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에코 파시즘 및 사회주의적 생태주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생태주의운동은 탈중앙집권·탈자본주의·탈국가주의적 경향을 보인다. 이점에 있어 생태주의는 아나키즘과 견해의 일치를 보이며 또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태주의와 아나키즘 사이의 상호연관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본래 생태주의와 아나키즘이란 이름으로 묶여 있는 사상의 다양성 때문에 명확한 공통점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개략적으로 생태주의와 아나키즘을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생태주의와 (사회적)아나키즘의 결합인 에코아나키즘(그러나 1999년에 이르러 북친은 스스로 아나키스트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¹⁾)으로서의 사회생태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물론 어느 한 사상이 절대적으로 옳은 해답이여 진리일 수는 없지만 어느 한 사상의 장단점을 살펴본다는 것은 더 나은 미래에 관한 청사진을 그리는 데 자양분이 될 것이다.

II 생태주의와 아나키즘

1. 생태주의와 아나키즘

생태주의와 아나키즘은 서두에 밝힌바와 같이 같은 이름 아래 묶인 사상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각 개념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다. 생태주의와 아나키즘 아직도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사상이므로 각각은 닫혀있는 사상이 아니라 열린 사상인 까닭에 어떤 의미에서는 개념을 규정하는 것보다 무엇이 아나키즘이 아니고, 무엇이 생태주의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이 더 접근방법으로 적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떤 한 개념은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축적을 통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들어지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생태주의와 아나키즘은 논자에 따라 그 범주와 용례가 다양하다. 일례를 든다면 벤 애거(Ben Agger)은 아나키스트로 분류되는 피트르 크로포트킨(Pyotr Kropotkin), 머레이 북친(Murray Bookchin), 이반 일리히(Ivan Illich) 등의 인물뿐만 아니라 마르크스까지 생태마르크스주의(eco-marxism)의 범주로 본다.²⁾ 물론 이와 같은 해석은 단순히 생태적 고려와 반자본주의 경향 혹은 마르크스주의와의 유사성만으로 생태마르크스주의로 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만 생태주의 혹은 아나키즘이 아직 개방적인 개념으로 논의의 지평이 열려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상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상의 이름하에 다양한 개념의 집합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수의 개념들 사이의 공통분모가 일정부분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의 방증이다. 따라서 공통분모를 추적한다면 명확하진 못하더라도 개념의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1) 머레이 북친, 서유석 역, 『머레이 북친의 사회적 생태론과 코뮌주의』 (메이데이, 2012) p182

2) 벤 애거, 박재주 역, 『현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이해』 (청하, 1990) p486

(1) 생태주의

생태주의는 그 개념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심층(근본)생태주의(deep ecology), 생태여성주의(eco-feminism), 영성생태주의(spiritual ecology), 사회생태주의(social ecology), 생태사회주의(eco-socialism), 생태마르크스주의 등 다양한 조류의 사상들이 존재한다. 이같이 생태주의라는 이름하에 있는 개념들은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주의는 근본적으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설정에 관한 차이를 토대로 양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태주의는 베리 커머너(Barry Commoner)가 창안한 원칙처럼 ‘①모든 생물종의 상호의존성, ②모든 물질은 어딘가에 반드시 남아있음, ③모든 인간 활동은 에너지 방출을 전제, ④자연에 대한 동경’이라는 점을 기본전제로 두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³⁾ 이는 생태주의가 개량적인 환경운동을 비판하면서 등장하였고, 생명체와 자연의 유기적 관계를 그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설정에서 생태주의는 크게 ‘자연과의 동반자적 관계하에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과 모든 생명체 사이의 평등성을 주장’하는 입장과 ‘인간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생태문제에 접근’하는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논자에 따라 후자를 ‘합리주의적 생태주의’, 전자를 ‘낭만적 생태주의’⁴⁾ 혹은 ‘순수생태주의’⁵⁾라고 부른다. 아래의 <표 1>은 두 생태주의 사이의 차이점을 비교한 것이다.

<표 1> 순수생태주의와 합리적 생태주의의 비교

	순수생태주의	합리적 생태주의
인 간 관	인간중심주의 비판	인간이성의 합리성 중시
자 연 관	자연과의 관계 회복	?
접 근 법	생물종간의 평등성 윤리적·영성적 접근	이성을 바탕으로 생태문제 해결 제도적·구조적 문제 해결 노력

기본적으로 전자와 후자 둘 모두 생태과피라는 현실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특히 대안으로 제시하는 해결책에 있어 과학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순수생태주의의 경우,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과 자연과의 조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영성’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을 지니고 있다. 물질중심적 사고가 만들어낸 문명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회운동을 넘어서 ‘영성’이 요구되며, 이 정신적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한 질서와 이론적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⁶⁾ 이점에서 순수생태주의는 신비주의, 영성운동, 동양사상, 그리고 신과학(new science)⁷⁾과 친화력을 지닌다. 하지만 인간중심주의 비판과 자연에 대

3) 김영환 외, 『서양의 지적 운동2』 (지식산업사, 2002) p687

4) 이상현, 『생태주의』 (책세상, 2011) p58

5) 김영환 외, 『서양의 지적 운동2』 (지식산업사, 2002) p685

6) 생태주의의 영성적 측면은 뉴에이지운동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은데, 이에 관한 기반을 제공한 것은 매릴린 퍼거슨(Marilyn Ferguson)이다. 신지학회(theosophical association)회원이었던 퍼거슨은 그의 저서 『The Aquarian Conspiracy』를 통해 녹색운동, 소비자운동, 반핵·반전운동 등의 20세기 사회운동의 지향점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것이라 정하고, 이를 새로운 시대를 향한 ‘물병자리시대의 공모’라 이름 붙였다. (매릴린 퍼거슨, 정성호 역, 『의식혁명』 민지사, 2011)

7) 엔트로피이론이 대표적으로 생태주의와 친화적인 신과학이론이다.

한 낭만주의적 동경은 극단적인 인간혐오 및 문명부정과 원시주의로의 회귀, 생태과시즘(eco-fascism)과 같은 부정적인 경향으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순수생태주의와는 달리 ‘합리주의적 생태주의’는 인간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이들은 인간 이성에 의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태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이 인간중심주의적 경향을 갖는 것은 아니나 인간이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인간을 자연계의 다른 종과 달리 보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합리주의적 생태주의는 관심의 초점을 인간과 사회로까지 확대되어 인간과 생태에게 가지는 구조적 폭력과 불평등의 문제를 다룬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녹색에 적색이 입혀지거나, 적색에 녹색이 입혀진 형태의 생태주의를 띠고 있어 순수생태주의가 간과할 수 있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자본주의의 파쇄성으로부터 기인하는 계급문제에 관해 지적한다. 그러나 시장 생태주의처럼 인간 이성에 의한 기술과 제도의 수정으로 생태적 현대화를 꾀하는 보수적 경향도 존재한다.⁸⁾ 이는 생태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인간이성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류발전의 기여에 있어 과학기술을 통한 문제해결에 관해 긍정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아나키즘의 정의와 특징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나키즘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아나키즘의 번역어인 ‘무정부주의’⁹⁾가 범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여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악육강식, 적자생존의 사회라는 이미지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영화와 소설, 그리고 드라마 등을 통하여 우리가 쉽게 접하는 문화콘텐츠 속의 아나키(Anarchy)란 힘의 논리에 의해 악한들이 지배하는 정부가 없는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를 그리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나키란 국가가 없는 유토피아적 공동체의 이미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핀드혼에서 야마기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영성, 과학, 이념 중 그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하건 간에 속세를 떠난 자급자족의 소규모 공동체들의 운영방식과 삶의 양식들은 아나키즘의 이상들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¹⁰⁾

고대 그리스의 디오게네스부터 중세 수도원, 장자와 양주의 사상에 이르기까지 전시대에 걸쳐 아나키즘과 유사한 아이디어들이 존재해왔다. 이점에서 아나키즘은 러시아 농민들과 코사크들의 생활방식에서 자유학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은 톨스토이와 같이 어느 한 명의 위대한 사상가로부터 탄생한 것이 아닌 대다수 평범한 인민들의 생활양식 그리고 누구나 지니는 어떠한 이상적 사고체계 속에 각인되어 있던 개념이며, 이것이 근대이후, 사상가들에 의해 활발하게 꽃이 피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¹¹⁾

8) 일종의 유행처럼 세계적으로 번져나간 ‘녹색경제’가 바로 시장 생태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9) 아나키즘이란 단어가 무정부주의로 알려지게 된 것은 과거 일본, 동경제국대학의 법학부에 재학중인 게무라야마 센타로가 쓴 『근세무정부주의』라는 책을 통해 아나키즘을 소개하면서 부터이다. 개화기 아시아에 소개된 사상들이 대부분 이념들 간의 개념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게무라야마 센타로 역시 러시아에서 테러 및 요인암살을 하던 허무주의자들과 아나키스트를 동일시하였는데, 이는 아나키즘은 일본에 부정적으로 소개하기 위함이었다. (정성호 저, 『동아시아 아나키즘, 그 번역의 역사』 책세상, 2001 pp25-26)

10) 올리버 포피노 외, 이천우 역, 『세계의 공동체 마을』 (정신세계사, 1993)

11) 지리상의 발견 이후 유럽인들이 원시적인 사회 혹은 그들이 미개인이라 불렀던 이들에 대한 감정은 둘로서 하나는 교화되지 않은 미개한 종족으로서의 이미지와 선량한 야만인으로서의 이미지이다. 후자의 경우 로크와 루소 등의 자연법사상과 사회계약론 등 많은 사상의 영향을 미쳤는데, 아나키즘 역시 이런 경향으로부터 예외가 아닐 것이다. 특히 북미 토착민들에 대한 유럽인들의 많은 기록들(비록 그것이 과장되거나 편향적인 성격이 내포되었을지라도)의 공통적 서술의 주된 핵심은 ‘자유와 평등’이었다. 즉 국가와 지배자로부터의 자유와 평등, 여남 간의 자유와 평등, 사유재산에서의 평등에 대한 기록들이 발견되는데, 이와 같은 점이 근대 이후

생태주의와 마찬가지로 ана키즘도 그 이름 아래에 다양한 사상들이 묶여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ана키즘의 특징을 말한다면 그것은 한 단어로 ‘자유’로 압축된다. 이는 ‘자율적인 개인’을 전제로 시작하여 사회·공동체와의 관계를 고찰하는, 즉 개인이건 사회건 그 어느 것에 보다 사상의 비중을 두건 간에 ана키즘은 기본적으로 권위적인 일체의 외압을 거부하고 자아실현과 인류 진보를 추구하는 사상이다. 따라서 ана키스트들이 국가 같은 기존 질서를 부정하는 것은 그것이 개인성장을 억압하기 때문이지 ана키스트들이 혼란을 추구해서가 아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ана키스트들의 공격대상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는 기존의 국가 중심적 법체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ана키즘에서의 ‘무지배’는 혼란과 무질서가 아닌 ‘합의된 질서’를 의미하며, 어느 러시아 ана키스트의 법정진술은 ана키즘의 이런 점을 잘 표현하고 있다.

“우리의 적들은 ана키를 무질서와 동일시한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ана키는 최고의 질서이자 최상의 조화이다. 그것은 권위가 사라진 생활이다. 만일 지금 투쟁하고 있는 적들을 무찌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를 갖게 될 것이며, 사회적이고 우애적이며 정의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¹²⁾

합의된 질서라는 맥락에서 박홍규 교수는 “모든 ана키스트가 법률가일 필요는 없으나, 모든 법률가는 ана키스트여야 한다.”고 말했다.¹³⁾ 모든 ана키스트들은 합의되지 않은, 즉 강권적이고 억압적인 것들을 거부한다. 따라서 ана키즘이란 이 같은 외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와 정의가 실현된 상태·사회를 추구하는 신념체계이자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나키즘의 공통적 특징으로서 ‘국가, 경제제도, 종교¹⁴⁾’비판의 기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출발한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ана키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일반적 인식과 같이 ана키스트들의 일차적인 표적은 국가다. ана키스트들의 국가비판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 즉 국가를 ‘①강제적 실체, ②착취적 실체, ③파괴적 실체’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강제적 실체인 이유는 국가란 인민 전체의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배계급들을 위한 인민 지배의 효율적 집행기구라는 점에서이다. 마찬가지로 착취적 실체인 이유는 마르크스가 “모든 시대의 지배적 사상은 지배계급의 사상이다.”라고 말했듯이 국가는 필연적으로 계급성을 반영하는 각종 법규와 제도의 제정을 통해 다수의 기회를 박탈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파괴적 실체인 것은 개인의 자율과 개성의 신장을 가로막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ана키스트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제도에 비판을 가하는데 이는 경제제도가 불평등의 기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ана키스트들은 자본주의란 기본적으로 필요가 아닌 이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에 잠재한 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본주의는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을 지배하기 위한 불평등한 분배 수단이라고 본다. 즉, 자본주의 체제 하의 인민들은 자본가들을 위해 부를 산출하는 노예의 상황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ана키스트들은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이는 사회주의가 국유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경제독점이 이루어지게 되어

국가 없는 세상에 대한 사고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12) 김영한 외, 『서양의 지적 운동』 (지식산업사, 1993) pp88-89

13) 박홍규, 『자유·자치·자연 ана키즘 이야기』 (이학사, 2004) p44

14) ана키스트들이 모두 신과 종교 전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도로시 데이나 톨스토이 같은 ана키스트들은 기독교라는 기반위에 ана키즘을 세웠다. 따라서 ана키스트들이 비판하는 종교란 세속화되고 제도화된 종교, 즉 도그마에 빠져 권위주의적으로 변질되고, 사회적 불의를 용인하며 권력의 시녀가 된 기성종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통제권을 장악하고, 더 나아가 공산당의 일당독재를 통해 정치까지 독점적으로 장악해 결국에는 모든 사회적 관계를 독점하기 때문에 전체주의적 속성을 나타낸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로서 사회주의는 평등을 가장한 불평등한 체제, 즉 독재로 인하여 불평등과 특권을 자행하는 국가의 새로운 변형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비판한다. 그러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경제이념에 대해서는 조합주의적, 공동체경제적인 접근만 있는 것은 아니다. 터커 같은 ана키스트들은 시장독점과 정부개입을 비판하면서 개인의 재산권 옹호와 오염되지 않은 시장자유주의를 대안으로 주장하기도 한다.¹⁵⁾ 마지막으로 ана키스트들은 종교란 교회가 초월적인 권위자로서 신을 상징하고 교리를 앞세워서 권위개인의 가치판단과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한다. 로마시절의 기독교는 박해 속에서 자유의지에 의한 신앙선택을 이야기하면서 종교에 대한 관용을 요구했지만 기독교가 된 후에는 사상을 이교에 대한 비관용적 태도로 일관해 십자군전쟁이라 불리는 광기와 폭력을 신의 이름으로 합리화했다.¹⁶⁾ 종교개혁이 가톨릭에 대한 비판으로 일어났지만 종교개혁은 성서로 권위를 전환하면서 바티칸에만 존재하던 교황을 교회마다 만들어냈다. 즉 종교개혁은 하나의 권위를 또 다른 권위로 대체시키려는 권력다툼에 불과했다.¹⁷⁾ 또한 이 모든 과정에서 종교는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세속 권력과의 밀월관계를 통해 국가의 악행을 합법화해왔다. 종교개혁시기 루터의 견해를 수용한 농민들의 반란을 루터와 제후가 진압했던 일이나 스페인내전 당시 프랑코와 가톨릭 사이의 관계는 종교와 국가 사이의 끈끈한 우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런 연유로 ‘국가, 경제제도, 종교’에 대한 비판은 ана키즘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특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¹⁸⁾

(3) ана키즘의 분류

아나키즘은 그 사상의 다양성만큼이나 그 분류 역시 다양하다. 가령 애브리치(Paul Avrich)같은 경우에는 ана키즘을 ‘①아나코-코뮌주의자(anarco-communist), ②아나코-조합주의자(anarco-Syndicalism), ③개인주의적 ана키스트(individual anarchism), ④앞의 세 범주에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ана키스트’로 분류하며¹⁹⁾ 이노우에(井上達夫)는 ана키즘이 추구하는 사회적인 통제형식 따라서 ‘시장 ана키즘(anarco-capitalism)과 공동체 ана키즘(communitarian anarchism)’으로 나눈다.²⁰⁾ 그러나 ана키즘 역시 생태주의처럼 기본적인 몇 가지 전제를 통해 분류한다면 크게 ‘개인주의적 ана키즘’과 ‘사회적 ана키즘’으로 나눌 수 있다. 양자 사이의 차이점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우선 개인주의적 ана키즘은 일반적으로 인간을 자족적이고 자립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회에 관해 ‘자율적인 개인의 단순한 집합’이라는 원자론적 입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개인 이외의 어떠한 힘이 개인을 압도한다면 개인은 자유를 얻을 수 없으며, 이와 반대로 자율성을 확보했을 때에만 개인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다고 본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개인주의적 ана키즘에서 개인이란 목적인 동시에 가장 소중한 가치로 평가된다.

15) 김은석, 『개인주의적 ана키즘』 (우물이 있는 집, 2004) pp36-37

16) 이단으로 평가되는 에비온파(Ebionites)의 경우, 단순히 전투와 점령 이후 대량학살뿐만 아니라 전투 이후 무슬림들 잡아먹는 식인행위까지 서슴없이 자행했다. (조르주 타트, 안정미 역, 『십자군 전쟁 - 성전탈환의 시나리오』 시공사, 2002 p43)

17) 김성주, 이규석, “그리스도교, 국가, 그리고 ана키즘”,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32집 제2호, 2011) p95

18) 김영한 외, 『서양의 지적 운동』 (지식산업사, 1993) pp91-93

19) 하승우, 『아나키즘』 (책세상, 2008) pp43-44

20) 김성주, 이규석, “그리스도교, 국가, 그리고 ана키즘”,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32집 제2호, 2011) p106

따라서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은 아나키즘의 가장 기본적인 지향점에 충실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들은 사회적 아나키스트들을 비판한다. 이는 사회적 아나키스트들의 공동선을 추구 과정은 불가피하게 개인에 대해 자의적인 간섭과 규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나키즘의 실현과 사회변화 방법에 관해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은 주로 토론과 저작활동을 통한 자기 발견이나 대중의 계몽에 주안점을 두는 철학적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런 까닭에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은 관념적 또한 사변적 성격을 띤다.²¹⁾ 몇 명의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들 살펴본다면 고드윈(William Godwin)의 경우 사회개혁 수단으로서 개인의 내적 변화를 제시하며 이를 통한 아나키즘 사회의 실현을 제시한다. 따라서 고드윈은 개인의 이성과 진보의 결립체인 기존의 제도와 가치를 부정하고 순수한 이성적 존재로의 복귀를 통해 이성과 정의가 지배하는 완전한 상태로의 도달을 추구한다. 한편 슈티르너(Max Stirner)는 개인, 즉 자기 자신은 ‘유일자’이며 ‘오직 유일무이한 실체’이기 때문에 나를 제외한 일체의 당위 규범들은 나를 소외시키는 고정관념으로 보고, 고정관념에 대한 ‘철저한 부정’을 통한 행동을 촉구할 것을 이야기하기에 ‘에고이스트적 아나키즘’으로도 불린다.²²⁾

<표 2> 개인주의적 아나키즘과 사회적 아나키즘의 비교

	개인주의적 아나키즘	사회적 아나키즘
사 회 관	자율적 개인의 단순한 집합	상호간의 긴밀한 유대를 통해 결속
인 간 관	개인 외 힘에 의한 개인압도 거부	상호부조로 표현되는 애정의 관계
실현방법	토론과 저작활동 통한 자기 발견과 대중의 계몽에 주안점	연대성의 공동체 통한 자유 주장 개인의 전체 복지 증진 활동주장
성 격	관념적·사변적	계급적·사회혁명지향

사회적 아나키즘은 개인주의적 아나키즘과 달리 인간을 개인의 단순한 집합이 아닌 ‘상호간의 긴밀한 유대를 통해 결속된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개인이 타인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적 연대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이유는 인간은 태생적으로 선한 존재²³⁾이기에 인간관계란 상호부조와 협동의 행위로 표현되는 애정의 관계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아나키스트들은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들이 말하는 자기 충족적인 존재로서의 개인은 경쟁심과 적대감으로 채색된 부르주아 사회의 왜곡된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의 완성을 통해 자유에 이르는 방법이 아닌 개인 각자가 모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일에 참여하는 연대성의 공동체를 통한 자유를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적 아나키스트들은 이름 그대로 사회적 변화와 개혁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생산수단의 공유·사회화, 사회혁명을 지향하는 계급성을 지니게 되며 19세기 중반 이후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에 많은 영향

21) 김은석, 『개인주의적 아나키즘』 (우물어 있는 집, 2004) pp.36-37

22) 앞의 책, p42

23) 성선설적 인간관은 아나키즘의 대전제중 하나이다. 결국 인간본성은 본래 선하기 때문에 자율성의 신장을 억압하는 외부요인들, 즉 국가, 경제제도, 종교의 폐지가 인간 자유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나키즘이 제시하는 끊임없는 ‘저항과 반역’은 개인의 자율성, 개성과 같은 인간성을 꽃 피우기 위한 필수적인 결단이다.

력을 발휘했다.²⁴⁾

2. 생태주의와 아나키즘의 비교

생태주의가 아나키즘과 같이 회자되는 가장 큰 이유는 생태문제 해결을 위한 행위자로서 국민국가에 대한 불신과 회의에서 기인한다. 물론 모든 생태주의적 관점들이 국민국가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민국가가 지닌 통제와 규제의 강제성이라는 측면에 주목해 생태사회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생태주의를 지향하는 이른바 ‘녹색국가’에 대한 논의는 여기에서 출발한다.

녹색국가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일 역시 쉬운 것이 아니다. 생태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녹색국가라는 점은 맞으나 녹색국가의 특징이나 분류 혹은 그 성격에 대한 논의들은 아직 만들어지는 과정인 까닭에 다양한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명래는 ‘국가론’에 대한 논의를 가장 인간중심적인 사회과학적 담론으로 보아, 근대국가란 반생명적, 반녹색적이라고 보았지만, 녹색국가는 근대국가의 역할을 확대하여 ‘인간종과 비인간종의 안녕을 도모하는 후대 근대국가의 한 유형’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생태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위해서는 ‘국가’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생태지향적인 사회를 위해서는 녹색에 의한 ‘지배와 통치’가 불가피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문순홍은 생태문제에 관한 국가의 역할에 따라 ‘최소한의 정의’로서의 약한 녹색국가와 ‘최대한의 정의’로서의 강한 녹색국가로 나눈다. 그에 의하면 약한 녹색국가는 “환경부담의 관리를 진지하게 떠맡은 국가이면서 기존 국가체계에 어떤 형식으로건 환경주의자들을 참여시킨 국가”를 의미하고, 강한 녹색국가는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과정과 절차를 시민사회 내에 마련하고 이에 더해 스스로를 변형시키는 국가”로 정의했다.²⁵⁾ 이는 단순히 환경보호와 환경문제에 관심을 쏟는 국가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국가전략 및 정책에 생태적 이슈를 포함시키는 과정을 통해 국가 전반을 녹색국가로 탈바꿈하여 국가의 해체에 이르기까지 스스로를 변형시켜 나가는 것, 즉 궁극적으로 ‘생태자치연방’으로 나아갈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 같은 녹색국가의 관심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것은 각각 ‘①생태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의 권위주의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흐름, ②지속가능한 발전을 국가의 발전전략으로 삼는 흐름, ③(대안적)민주주의 개념과 생태주의를 결합하는 흐름, ④복지국가로서의 녹색복지국가’이다.²⁶⁾ 그러나 생태위기 극복에 있어 국민국가의 힘을 빌리거나 이용하려는 시도들이 과연 해답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이다. 녹색국가를 통한 생태위기 극복 시도들은 좋으나 궁극적인 해답은 얻지 못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녹색국가전략을 통한 생태위기 극복의 대전제는 대의민주제 하에서 생태주의적 가치를 지닌 혹은 환경주의자들의 권력획득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는 현시점에서 카르텔정당으로 시작한 녹색당이 포괄정당으로 당을 변혁하지 않는 이상어렵다고 본다. 물론 독일녹색당이 ‘반정당의 정당’강령을 포기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지만 기본적으로 포괄정당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국가 내의 국민다수의 이익과 움직임에 부합하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초국가적인 관점과 협력이 요구되는 생태위기극복에 있어 ‘국익’이라는 관점에 묶여 정책과 공약이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만약 이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면 사회전반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점을 전제로 하는데, 인식의 변화에 제도가 주는

24) 김영한 외, 『서양지적운동사』 (지식산업사, 1993) pp.100-101

25) 구도완, “환경위기와 녹색국가” 『환경정책』 (제10권 1호, 2002) pp130-131

26) 이상현, 『생태주의』 (책세상, 2011) pp49-50

영향도 무시할 수 없지만 단순히 제도 하나만 가지고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해당 국민국가 내의 국민들이 ‘무욕의 노승’이 되지 않는 이상 경제성장이라는 마수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이에 따라 포괄정당으로서의 전환노력은 곧 ‘성장제일주의’ 담론의 수용으로 직결될 것이다.

또한 국가의 규제와 통제 능력에 초점을 맞춘 권위주의형 녹색국가를 만들어낼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생태파시즘의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생태관리를 위해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아무리 생태적인 녹색국가라고 한들 무의미할 것이다. 신멜서스주의적 관점에서 산악제한을 위해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으로 산악제한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실제로 환경독재를 했던 도미니카 공화국을 살펴보자. 프루히요(Rafael Trujillo)와 발라게르(Joaquín Balaguer)의 독재기간 동안 도미니카 공화국은 녹지가 보존되고 산림 파괴 후 호화별장을 짓는 일들이 신분에 상관없이 처벌되었으며, 국립공원 관통 도로공사 및 공항과 항구, 그리고 댐 건설이 중단되었다.²⁷⁾ 그러나 이들 치하에서는 군대를 동원한 주민학살이 자행되기도 했다. 특히 프루히요 치하에서 일어난 파슬리학살(1937)은 아이티계 주민 2~3만 명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열성적이고 심지어 전투적이기까지 한 환경주의자들이 장기 집권한 결과가 이것이다.

이와 같은 위험성과 국민국가에 대한 불신덕분에 생태주의의 많은 부분들은 아직까지 탈국가적 운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국가제도와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생활협동조합과 마을 만들기 같은 공동체운동이 대표적인 탈국가적 생태주의운동이다.

일반적으로 협동, 생명, 평화와 같은 가치를 중시하며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그리고 자치적인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권력이 아닌 이와 같은 가치에 중심을 둔 공동체를 건설하여 장기적으로 국가권력의 해체를 통해 국가 없는 공동체를 만들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동체성·상호의존성·상호부조의 논리’에 기반하고 있으며, 공동체의 경우에 따라 ‘영성’까지 포괄하기도 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모든 생태주의 운동이 탈국가적인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생태문제를 다루는 국민국가의 역할과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탈국가주의적’ 경향을 보인다. 또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며 공동체의 자급자족과 자치를 추구하고 풀뿌리란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지방분권적’인 동시에 생태위기와 인간소외를 야기하는 원인제공자로서 자본주의를 지적하고, 성장담론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주장하기에 ‘탈자본주의적’인 경향을 보인다. 이점이 바로 생태주의가 아나키즘과 상호연관성을 지니는 부분이다. 사실 이처럼 생태주의와 아나키즘 사이의 연관성이 짙은 이유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생태운동이 아나키스트인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크로포트킨은 그의 저서 『상호부조론』을 통해 종의 유지와 진화에는 상호간의 투쟁을 통한 적자생존을 통한 방법보다 상호간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부조가 더 적합함을 주장했다. 즉 적자생존이란 경쟁이 아니라 곧 상호부조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사회가 진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라고 주장한다. 그 한 가지 예로 크로포트킨은 그의 저서 상호부조론에서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실용화하는 데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까닭은 정밀작업을 할 수 있는 장인들을 쉽사리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중세의 피렌체나 브뤼헤 같은 도시였다면 20년이나 허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²⁸⁾

27) 앞의 책 p163

수단은 목적에 이르기 위한 도구이지만 우리는 역사 속, 그리고 현실 속에서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탈국가적 생태주의운동은 밑으로부터의 운동으로 시작하여 전반적인 사회 인식을 변화시켜나가는 장기적인 투쟁이다. 물론 공고하게 굳어진 자본과 국가 사이의 유착관계를 끊어내고 폭력과 독점체로서 국가권력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정치참여부터 생활정치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참여와 투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국민국가에게는 신뢰가 아니라 지속적인 감시와 의혹의 눈초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운동의 주체로서의 국민국가를 상정하지 말고 모든 생명체가 자율적인 주체로서 참가하는 탈국가적 방향으로의 생태운동은 포기될 수 없기에 이에 따라 아나키즘의 아이디어들과 생태주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Ⅲ 사회생태주의

1. 사회생태주의의 특징

사회생태주의는 북친에 의해 기존의 생태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다. 이는 사회생태주의가 생태위기 심화의 근원이 인간사회에 뿌리깊이 내린 사회문제에 있음을 지적하기 때문이다. 물론 생태주의가 생태위기를 야기하는 요인으로서 사회문제를 지적하지 않거나 무관심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태주의가 보다 근본적으로 사회문제를 지적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태주의자들은 인간에 의한 자연지배의 근원을 데카르트 이후의 기계론적 자연관에서 찾는 반면 북친은 인간에 의한 자연지배가 ‘인간에 의한 인간지배’로부터 연원한다고 주장한다. 즉 자연지배의 이데올로기는 인간사회에 등장한 위계질서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초기 인류가 자연과 맺은 평등한 관계가 점차 자연을 인간 공동체와 구별하는 하나의 대상으로 보게 만들어 결국 위계질서 속에 자연을 편입시켜 하나의 지배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친은 생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단순히 생태문제에 대한 해결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위계질서와 이에 따른 지배관계를 철폐할 것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경향 때문에 사회생태론은 에코아나키즘으로 불리기도 한다. 북친은 아나키즘에 호의적인 입장(라이프스타일 아나키즘을 제외하고)을 보았지만 서론에 밝힌바와 같이 북친은 1999년 제2차 리버테리언 지역자치주의 학술대회에서 스스로 아나키스트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북친은 스스로 자신의 사상을 ‘코뮌주의’라고 부른다. 그러나 북친의 반국가, 연방주의, 지역자치와 자주관리 등의 가치를 내포한 코뮌주의 추구는 기존 아나키즘의 전통에 입각해있으며, 특히 크로포트킨의 영향을 깊이 받았음을 부정할 수 없다. 오히려 북친이 아나키즘이란 토양위에서 사회생태주의를 꽃 피운 것이라고 볼 수 있기에 사회생태주의를 아나키즘의 범주에 넣지 않더라도 아나키즘과의 깊은 태생적 연관성을 거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점에서 북친이 아나키즘과 애증의 관계로 결별한 것은 국가소멸과 그 이후의 모습을 막연하고 낭만적으로 서술하는 아나키즘과 차이를 두고 싶어 했을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북친은 크로포트킨과는 달리 선거를 긍정함으로 직접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선거로의 참여라는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정부구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친이 아나키스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프루동도 말년에 자기 자신을 아나키스트

가 아닌 ‘연방주의자’라고 불렀다. 진정 중요한 것은 복친이 아니키즘과 생태주의의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고민하면서 자기의 사상을 발전시켜 내놓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생태주의의 특징은 무엇인가?

사회생태주의의 첫 번째 특징은 ‘변증법적 자연관’이다. 복친에 의하면 자연은 필연이 아니라 여러 종들의 자유 선택에 따른 진화 과정 그 자체이며, 이 과정 자체가 유기체적이고 발전적이라고 본다. 즉 자연은 단적인 존재에서 다적인 존재로, 동질적인 것에서 특수한 개체로 분화시키며, 자유로운 자아 형성을 도모하는 과정, 즉 자연은 ‘발전과 진화과정’ 그 자체라고 보는 것이다. 복친의 다음과 같은 말은 그의 사상을 잘 나타낸다.

“자연진화의 주요한 특징은 주체성과 유연성의 증대, 분화의 증대이다. 이를 통해 유기체는 새로운 환경이 초래하는 도전과 기회에 보다 잘 적응한다. 그리고 생명체들, 특히 인간은 환경변화에 단순히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구비하게 된다. 다음과 같은 추측이 가능하다. 원자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새로운 화학적 결합을 이루어 보다 복잡한 분자들이 생겨나고 여기서 다시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형성되다가 적절한 조건 아래서 초보적 생명체가 탄생했다고. 그리고 물질 자체의 이런 잠재성이 무기적 자연에 내재한다고. 또 주체성과 유연성에 앞선 존재가 환경변화에 더 잘 적응하는 것은 ‘생존경쟁’과 ‘적자생존’의 법칙에 의해 설명된다고 당연하게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유전의 드라마가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 증거는 화석에 각인되어 있다. 자연은 기록, 이러한 역사, 이러한 발전과정, 진화과정 그 자체이다. 이러한 엄청난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현실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²⁹⁾

복친이 자연을 이와 같이 보는 이유는 변증법의 필수적인 ‘목적성’을 ‘변화와 발전’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여러 종들의 자유 선택에 따른 진화 과정이라는 점에서 ‘참여주의적 진화생태’라고도 한다.

복친은 자연을 일차 자연, 이차 자연, 그리고 삼차 자연(자유자연) 셋으로 나눈다. 복친에게 일차 자연 야생 상태의 자연, 즉 생물학적 자연을 의미한다. 일차자연은 자연 스스로의 내적동력에 의해 이차 자연으로 분화되는데, 이차 자연은 인간 문명이 발달한 자연, 즉 사회적 자연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자유 자연으로서의 삼차 자연은 인간사회의 사회생태주의에서 말하는 가치들이 실현된 상태로 아직은 도래하지 않은 자연이다. 복친은 이 자연 사이의 관계를 연속된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고, 이를 통해 변증법적 수직구조 대신 수평적구조로 재편했다. 따라서 자연은 기본적으로 비위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사회에 자유·창조·다양성의 기반을 제공하는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복친에게 있어 생태위기란 이 유기적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인간사회에 등장한 위계적 질서가 자연을 위계 질서 안에 편입시키면서 야기되었다고 주장한다.

사회생태주의의 두 번째 특징은 ‘인본주의’이다. 복친은 자연과 인간을 개별적으로 괴리된 존재로 보지는 않았지만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진화된 존재로 보았다. 이런 까닭에 사회생태주의는 인간 이성에 절대적인 신뢰와 낙관을 보낸다. 복친이 순수생태주의를 비판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인간혐오’인 점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복친인 인간중심주의적인 관점을 견지한 것은 아니다. 복친이 자연과 사회의 유기적 관계를 회복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 자연의 참여적 진화에 인간이 능동적으로 개입할 것을 주장하는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간이란 ‘지배하는 종’이 아니라 ‘돕는 종’으로 상보성의 윤리의 입각해 다른 종의 진화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 점에서 복친은 이

29) 머레이 복친, 서유석 역, 『머레이 복친의 사회적 생태론과 코뮌주의』 (메이데이, 2012) pp24-26

성에 지나치게 신뢰를 보내며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생태주의의 마지막 특징으로는 생태문제와 사회문제의 결합이다. 북친이 주류환경운동과 심층생태주의, 그리고 동양적 신비주의 및 영성생태주의를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와 자연을 분리시키거나 둘 사이의 관계를 경시하기 때문이다. 북친에게 있어 생태위기의 기원은 자연이 위계적 질서로 편입된 것이며 이는 곧 사회적 위계질서의 탄생, 즉 인간에 의한 인간지배로부터 기인한다. 따라서 북친은 위계질서의 대표적인 상징인 ‘국민국가’에 기대는 환경운동은 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며, 지배와 피지배라는 모순된 구조의 해결의 선행 없이는 생태위기의 해결은 있을 수 없다고 보았다. 북친이 순수생태주의를 비판한 것은 바로 이점에서이다. “요컨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관계방식에 대한 고찰이 생태위기를 다르는데 핵심이다. 이 점을 명확히 깨닫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지배와 정복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이라는 위계적문화와 계급관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바로보지 못하게 된다.”³⁰⁾는 북친의 말은 그가 얼마나 이를 중시했는지 잘 보여준다.

2. 북친의 정치관과 경제관

사회생태주의를 주장한 머레이 북친의 정치관은 ‘코뮌주의’다. 북친의 정치관이 왜 아나키즘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설명을 했다. 북친 역시 아나키스트들과 마찬가지로 국가란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수단임을 인정하나, ‘정치(polity)’를 문제들을 평화롭고 공정한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의 총체로서 상정한다. 따라서 모든 협의기구는 국가의 존폐여부와 상관없이 정부의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북친은 지난 수세기 동안의 민중들은 국가의 즉각적 철폐가 아니라 헌법제정과 입헌정오로의 전면적 전환 등을 요해왔음을 강조했다면서 정부 자체와 법률까지 반대하는 것은 남는 것이 없다고 보았다. 다음의 <표 3>은 북친의 코뮌주의가 지닌 특징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북친의 코뮌주의 특징

코뮌주의	
정치관	리버테리언 지역자치주의 (느슨한 연방제) 읍면동 단위 민회의 집합인 민주적 자치체 (연방) 적극적인 풀뿌리 정부구성 노력 다수결의 원리 채택 조직 내 리더의 존재 인정
경제관	자치체의 경제 통제 지방의회·민회의 생산기업 권한 소유 도덕경제 (경제적 동기 : 이익 → 도덕·사랑(philia))

30) 앞의 책, p18

북친이 주장하는 코뮌주의의 정치적 특징은 우선 첫 번째로 국가 없는 연방주의를 추구한다. 사실 이점에서 코뮌주의는 ана키즘과 그 궤를 같이 하는데, 이는 북친 스스로도 코뮌주의는 ана키즘으로부터 ‘반국가주의와 연방제’, 그리고 ‘위계질서의 폐지는 리버테리언 사회주의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북친은 코뮌주의가 ана키즘의 한 형태가 아니라고 입장을 정하기 전인 1994년에는 코뮌주의를 ‘민주적 ана키즘’이라고 지칭했다).³¹⁾ 북친은 국가중심의 지역자치제를 폐지하고 리버테리언 사회주의에 걸맞은 지역자치제도의 개편을 주장했다. 이는 기존의 관공서 같은 국가기관 중심의 위계적 지배구조를 읍면동단위로 쪼개 ‘민회’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민회의 운영을 통해 공동체는 구성원들 사이의 면대면 관계를 갖는 직접민주주의의 도달할 수 있다. 코뮌주의의 민회는 고대 그리스와 같이 시민(그러나 여성과 외국인이 배제되지 않은)들로 이루어진다. 파리, 페트로그라드, 바르셀로나 등 일련의 혁명들에서 ‘시민의 역할’을 거세할 수 없다. 북친은 현대사회는 블루칼라와 중산층을 분간하기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하. 덧붙여 반세계화 운동에서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그리고 인본주의자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행진한다며 중산층과 사회불만에 가득찬 뿌뿌르주아들을 재교육하고 그들의 힘을 빌리지 않는 이상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과거 사회주의세력에 있어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언제나 소수자의 혁명이었고, 볼셰비키는 이름이 나타내듯 그룹 내에서조차 소수였다. 사실 일부 노동자의 처우가 과거에 비해 월등하고 사실상 중산층에 가까워진 것도, 그리고 노동자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이주노동자로 나뉘어 서로 반목하는 것 역시 현실이다. 산업 자본주의의 끝없는 성장과 발전에 대한 욕망은 그대로지만 산업구조는 이미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의 그것이 아니다. 현대사회에서 화이트칼라를 배제한 프롤레타리아만의 혁명은 그저 단순한 망상이다. 북친은 변혁의 주체가 프롤레타리아에서 ‘시민’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친은 공동체로서 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채택한 코뮌들이 건설되고 이들의 집합을 통한 연방주의를 꿈꾼다. 그러나 그렇다고하여 북친이 개량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지자체는 국가주의의 틀 안에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국가위 위계질서를 해체하려는 코뮌주의 운동과 충돌은 불가피하다. 북친은 국가와 도시로부터 지역주권을 가져오는 이 과정이야말로 필사적인 투쟁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사회질서와 타협하지 말 것을 주장한다.

두 번째 특징은 ‘정부구성’노력이다. 달리 말하면 ‘정치’를 배제하지 않고 ‘권력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점에서 코뮌주의는 ана키즘과 차이를 벌리며 독자적인 사상으로서의 특징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북친은 코뮌주의자들은 탈국가적 생태주의자들처럼 시도들인 도시텃밭과 생협운동 같은 사업을 벌일 것이 아니라 힘을 모아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을 종용한다. 코뮌주의자들은 시의회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나가면서 국가기관들의 지위를 박탈하고 통제권을 빼앗아오는 등 국가로부터 해방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는 의미다. 북친은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각 지역의 지자체에 코뮌주의자들이 힘을 얻은 자치체들 사이의 동맹을 통해 국가에 대항해야한다고 이야기한다. 그에게 있어 새로운 좌파의 건설은 시민들의 공적행동과 담화의 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정치적 특징은 ‘다수결의 원리를 인정’한다는 점이다. ана키스트들이 대의제민주주의 및 선거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은 합의에 의한 결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인데, 북친은 이와 반대로 코뮌주의는 매사에 만장일치의 의견을 보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합

31) 앞의 책, p145

의를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를 붕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다수결의 원리를 채택하되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소수의 의견을 다수의 의견만큼 존중하며 소수가 위축될 경우 공동체가 개입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정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³²⁾

마지막 특징으로 조직과 교육 문제에 있어 ‘리더십’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점이다. 스페인내전에서조차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한 인물들을 제외하고 이야기할 수 없다며 복친은 조직과 교육 등 주요 문제는 신념이 약한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리더십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은 협의된 규약에 준수하고 책임을 지녀야하며 조직원들은 항상 리더를 견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해야한다고 말한다.³³⁾

다음으로 코뮌주의의 경제관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생산수단을 지자체의 통제 아래 둔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각기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거나 국유화한다. 그러나 코뮌주의는 이 같은 양식이 결국 사회의 위계질서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의 관리 하에 둘 것을 주장한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민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곧 생산수단은 일부가 아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곧 노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시스템인 것이다.

두 번째 경제적 특징으로는 경제적 동기를 도덕 혹은 사랑(philía)에서 찾는 도덕경제를 주장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윤이 아니라 상대방의 삶의 질을 위한 도덕적 의무에 기반한 경제를 꿈꾼다.

“‘성장 아니면 죽음’의 시장에 의해 생산된 것이면 설령 그것이 ‘부드러운’ 기술이라 할지라도 자본주의의 파괴적 목적에 이용될 수밖에 없다. 200년 전, 영국의 숲 대부분은 청동기 시대 이래 별 변화 없이 사용되어 온 도끼로 벌채되어 용광로 연료가 되었다. 또 19세기가 전 세계로 상품을 싣고 나간 건 돛단배였다. 그뿐인가. 미국의 산림과 야생을 망가트리고 원주민 인디언을 학살하는데 사용된 도구와 무기는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의 그것과 별 다름이 없었다. 현대 기술이 한 것은 중세 말기부터 진행되어 온 과정을 가속화했을 뿐이다. 수 세기 동안 진행되어 온 것을 두고 현대 기술에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것은 다만 시장 체제가 야기하는 피해를 가속화하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점점 더 확대되는 시장 체제다. 이것은 상보성과 상호부조가 아닌 교환에 근거한 생산 분배 체제의 등장이라는 커다란 역사적 변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³⁴⁾

위계질서와 계급질서에 덧붙여진 ‘시장의 파괴적 논리’는 단순히 기술의 책임이 아니라 인간이 끝없이 ‘이익과 성장’에 취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친은 ‘성장중심주의’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하며 그 대안으로서 이윤이 아닌 도덕에 따른 경제원리를 주장한 것이다. 그의 입장에서 인간은 다른 생물종의 진화와 발전에 도움을 주는 상보성의 윤리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눈먼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IV 결어 : 더 나은 급진주의를 위해

아나키즘과 국민국가를 거부하는 생태주의, 그리고 사회생태주의는 급진주의일 수 밖에 없다. 사실 아직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현실에서 국민국가라는 틀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생

32) 앞의 책, pp163-164

33) 앞의 책, 166-167

34) 앞의 책, 56-57

태위기에 관한 접근이 차단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민국가 혹은 거대기업이 야기하는 비극적인 생태파괴의 현실 속에서 조직적인 반대운동들이 결국 수포로 돌아갔던 것은 제도권과의 투쟁을 전개하기엔 이념적인 지속성과 결집력이 부족한 소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에게 패배하지 않았다. 언제나 교조적인 기존 사회의 틀을 부순 건 다수의 사상이 아니라 소수의 사상이었다.

이상주의자들의 마지막 전쟁이었던 스페인 내전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아나키즘은 아직까지도 내려오고 있다. 생태주의자들은 아직도 정치의 많은 부분들을 녹화(綠化)시키는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우리는 세계의, 그리고 지역적인 모습들이 녹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제도권에서의 변혁시도로 녹색당이 만들어지고 세력을 얻어나가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세계가 점점 녹화된다고는 하지만 급진주의자들은 항상 배가 고프다. 아나키즘과 탈국가적 생태주의운동(탈국가적인 생태주의 운동이야말로 급진적 생태주의 운동이란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사회생태주의는 이런 급진주의자들의 허기를 달래주는 수단이다. 급진주의적인 이념들은 항상 현상적이고 피상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지적하는 원론적인 담론들을 다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점이 바로 급진주의의 맹점이다.

원론적인 담론들을 다룬다는 점에 있어 현대사회로 올수록 점점 급진주의는 그저 단순히 인텔리들의 지적 유희를 위한 쾌락의 도구정도로 여겨지고 있을 뿐이다. 급진주의는 자위기가 아니라 끝없는 가치추구를 위한 주마가편의 수단이다.

국가 없는 사회는 불로소득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아나키즘과 생태주의, 그리고 사회생태주의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화석이 아니다. 이들 이념들은 우리에게 여러 방향을 제시한다. 하지만 복친이 아나키즘과 생태주의에 대한 깊은 고민 속에서 사회생태주의를 개화시켰듯이 더 나은 급진주의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상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물이 고이면 필히 썩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념역시 담아 놓으면 그 이념은 곧 죽은 이념과 다름없다.

아나키즘과 생태주의는 서로 다른듯하면서도 닮은 부분들이 많다. 사실 아나키즘에는 생태주의적 맹아들이 숨겨져 있고, 생태주의에는 아나키즘의 맹아들이 숨겨져 있다. 이 숨겨진 씨앗을 발견하고 개화시킨 사람이 복친이다. 그렇게 복친이 꽃피운 사상이 바로 사회생태주의인 것이다. 물론 사회생태주의도 여러 비판을 받고 있으며 그 비판이 부당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비판은 물론 '현실성'의 결여일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현실성만 논하고 있을 것인가?

탈국가적 생태주의운동과 소비자운동으로서의 협동조합운동은 긍정적이다. 생협의 확대는 생산과 소비를 괴리시키지 않고 공동체의 기반을 두고 있는 등 그 장점을 일일이 열거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협동조합이란 것도 궁극적으로는 '생산'을 통해 '소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윤'을 얻는 활동이다. 결국은 생산을 통해 이윤을 얻고 그것을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협동조합은 현대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사실상은 자본주의라는 틀 안에 있는 제도이다. 이대로 협동조합운동을 방치한다면 운동 취지와는 달리 자본주의에 포섭당할 것이다. 급진주의는 바로 이 같은 점에서 운동들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등대다.

더 나은 급진주의란 곧 더 나은 활동들을 의미한다. 이는 급진주의에 대한 사유와 고민일 수도 있고, 신념에 따른 사회적 실천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유와 실천이 괴리되어서는 꿈과 가까워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구도완, “환경위기와 녹색국가” 『환경정책』 (제10권 1호, 2002)
- 김성주, 이규석, “그리스도교, 국가, 그리고 아나키즘”,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32집 제2호, 2011)
- 김영한 외, 『서양의 지적 운동』 (지식산업사, 1993)
- 김영환 외, 『서양의 지적 운동2』 (지식산업사, 2002)
- 김은석, 『개인주의적 아나키즘』 (우물이 있는 집, 2004)
- 머레이 북친, 서유석 역, 『머레이 북친의 사회적 생태론과 코뮌주의』 (메이데이, 2012)
- 박홍규, 『자유·자치·자연 아나키즘 이야기』 (이학사, 2004)
- 벤 에거, 박재주 역, 『현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이해』 (청하, 1990)
- 올리버 포피노 외, 이천우 역, 『세계의 공동체 마을』 (정신세계사, 1993)
- 이상헌, 『생태주의』 (책세상, 2011)
- 정성호 저, 『동아시아 아나키즘, 그 반역의 역사』 (책세상, 2001)
- 조르주 타트, 안정미 역, 『십자군 전쟁 - 성전탈환의 시나리오』 (시공사, 2002)
- 하승우, 『아나키즘』 (책세상, 2008)
- P. A. 크로포트킨, 김영범 역 『만물은 서로 돕는다』 (르네상스, 2005)